

SEPTEMBER
2022

M LUXURY

Cartier





<LUXURY M>은 2016년 창간 이래 최고의 프리미엄 매거진 <LUXURY>의
기획과 진행으로 <매일경제>의 주요 지국과 <LUXURY> 독립 배본망을 통해 배포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잇는 시티 라이프스타일 미디어입니다.

Contents

SPECIAL

CULTURE SPACE IN SEOUL

08

KNOW-WAVE, KIM SEUNGHWAN

PEACHES, YEO INTAEK

04 HEAD TO TOE

이달에 알아야 할 정보와 트렌드

18 PREVIEW

각 분야 에디터들이 꼽은 이달의 신제품

22 TREND

블루·그린 다이얼 위치의 다양한 면모

24 SURVEY

남자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향수

26 REVIEW

뷰티 피플이 평가한 신제품 립

28 DESIGN SPOT

지금 방문해야 할 서울의 타파스 바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까르띠에. 탁월한 장인 정신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주얼리와 위치·향수·가죽 제품·액세서리 카테고리를 아우르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함을 선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까르띠에 컬렉션 전시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동시대 사회·문화 및 예술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브랜드의 유산을 한층 더 풍성하게 채워가고 있다.

2022년 9월호 통권 제71호
2022년 8월 29일 발행(매월 발행)
2016년 10월 12일에 등록, 등록번호 서울 중. 라-00650
발행 공급처 (주)디자인하우스(02-2275-6151)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출력 (주)에이디코아(02-323-6493)
인쇄처 M-print(031-8071-0960)
이 잡지의 일부 기사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LUXURY.DESIGNHOUSE.CO.KR

LUXURY EDITORS

EDITORIAL

EDITOR IN CHIEF

윤정은 Jungeun Yoon · yoon29@design.co.kr

FASHION EDITOR

홍혜선 Hyesun Hong · hhs@design.co.kr

최윤정 Yoonjung Choi · yj.choi@design.co.kr

BEAUTY EDITOR

이지형 Jihyung Lee · jh.lee@design.co.kr

정두민 Doomin Jeong · dmj@design.co.kr

LIVING & FEATURES EDITOR

김수진 수석 기자 Sujin Kim · jin@design.co.kr

안서경 Seogyong Ahn · seo@design.co.kr

한동은 Dongeun Han · dehan@design.co.kr

ART DIRECTOR

손익원 Ikweon Sohn · bart@design.co.kr

DESIGNER

홍수연 Sooyoun Hong · syhong@design.co.kr

김보성 Bosung Kim · today17@design.co.kr

최덕희 객원 디자이너 Duckhee Choi

PHOTO DIRECTOR

이우경 Wookyoung Lee · watt@design.co.kr

PHOTOGRAPHER

이기태 · 이경옥 · 이창화 · 김은지 · 박성연

STONE STUDIO

염정훈 Junghoon Yum · 황인우 Inwoo Hwang

COPYREAD

전남희 Namhee Jeon

ADVERTISING

DIRECTOR

이경호 Kyongho Lee · paradise@design.co.kr

CHIEF MANAGER

김수진 Soojin Kim · kimsoojin@design.co.kr

SENIOR MANAGER

정혜림 Hyerim Jeong · hr.jeong@design.co.kr

ASSISTANT MANAGER

도현준 Hyunjoon Do · gihun0604@design.co.kr

DISTRIBUTION MANAGER

송은우 Eunwoo Song · ewsong@design.co.kr

DEPUTY MANAGER

이건태 Guntai Lee · guntai77@design.co.kr

DESIGN HOUSE INC.

DIRECTOR OF DESIGN BUSINESS

이민형 디자인프레스(주) 대표 겸직 Lucy@design.co.kr

DIRECTOR OF EXHIBIT BUSINESS

조상연 이사 Sangyeon Cho · csy@design.co.kr

DIRECTOR OF BUSINESS STRATEGY

이영임 상무 Youngim Lee · yilee@design.co.kr

LEGAL ADVISOR

김영철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KCL)

DIVISION LEADER

김은령 부사장 exlibris@design.co.kr

PRESIDENT·PUBLISHER

이영혜 대표이사·발행인

Time
travels the world.

ARCEAU LE TEMPS VOYAGEUR



TIME, A HERMÈS OBJECT.



Head

EDITOR 김수진(KSJ)·이지형(LJH)·안서경(ASG)
최윤정(CYJ)·정두민(JDM)·한동은(HDE)

NARS

자연스럽고 웨어러블한 6가지 MLBB 컬러 라인업으로
글로벌 최초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에어 매트 울트라 립 틴트'. 베스트 컬러인 '둘체 비타'는
자연스러운 핑크빛으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제격이다. 080-564-7700

DIOR

묻어나지 않는 매트 피니시로
오랜 시간 선명한 컬러를
유지하는 '루즈 디올 포에버
스틱 #999 포에버 디올'을
출시한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레드 컬러가 부드러운 발림을
선사하면서 매혹적인
립 메이크업을 연출한다.
080-342-9500

ARMANI BEAUTY

2가지 오일 조합으로 지속력과 편안함을
동시에 사로 잡았다. 고품질 컬러 피그먼트를 농축해
열은 광채를 띠며 밝은 채도의 컬러감이 특징이다.
핫 핑크 톤에 레드 한 방울을 넣은 듯한 비비드 코랄 컬러의
'립 파워 #305 엑센트'. 080-022-3332

GUERLAIN

나비의 날갯짓에서 영감 받은 화려한 메탈릭 패턴의
패키지가 시선을 사로잡는 '루즈 G 버터플라이'
리미티드 컬렉션. 선명한 컬러에 은은한 진주빛이 감도는
벨벳 메탈 포뮬러가 부드럽게 발리며 빛나는
피니시를 완성한다. 080-343-9500 (JDM)

AUTUMN LIPS

PHOTOGRAPHER 엄정환

NEW CAR

MINI JCW 애니버서리 에디션 미니의 고성능 브랜딩 'JCW'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740대만 출시한 온라인 한정 판매 모델. 몬테카를로 랠리 우승을 이끈 레이싱 선구자 존 쿠퍼 John Cooper를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최고출력 231마력을 발휘하는 직렬 4기통 터보 가솔린엔진을 탑재했고 실내외 곳곳에는 미니와 쿠퍼 가문의 60년 동행을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를 반영했다. 화이트 포인트 외장과 18인치 JCW 서킷 스포크 휠을 장착해 경쾌하고 스포티한 감각을 더했으며, 실내에는 몰트 브라운 컬러의 레더 시트, 나파

가죽 스티어링 휠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shop.mini.co.kr

페라리 296 GTS 페라리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컨버터블 스포츠카. 167마력의 전기모터와 663마력의 120도 V6 터보엔진이 결합해 동급 최고 수준인 총 830마력을 뽐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2.9초. 페라리만의 기술로 개발한 경량 알루미늄 소재의 RHT를 장착해 오픈 톱 주행의 감성을 더했고, 다이나믹 컨트롤 시스템·공기역학 시스템 등을 적용해 드라이빙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순수 전기모드로 최대 25km까지 주행 가능하며, 100% 디지털 인터페이스 콘셉트의 운전석이 새로운 시대의 페라리를 제시한다. 3433-0808 (KSJ)





LOTOE

NOISE CANCELLING HEADPHONE

MARK LEVINSON 미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마크레빈슨 최초의 무선 헤드폰이다. 'No.5909'는 사용 환경에 따라 3단계 노이즈 캔슬링 수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주변 인식 모드를 적용해 헤드폰을 착용하고도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급 가죽 소재의 헤드밴드와 교체 가능한 메모리폼 이어 쿠션을 갖춰 오래 착용해도 편안하다. 2255-0114

SENNHEISER 쟈하이저가 시그니처 라인업 '모멘텀'의 음질과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신제품 '모멘텀 와이어리스 4'로 3년 만에 돌아왔다. 주변 소음을 모니터링해 소음 정도에 따라 차단하는 '어댑티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적용해, 사운드 몰입을 돕는다. 배터리 수명은 최대 60시간을 자랑한다. 1544-1699 (HDE)



KHEESOJU LAUNCHING PARTY

'라크마LACMA 아트+필름 갤러리'의 의장이며 'LA 걸차 칸'으로 불리는 에바 차우가 만든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키Khee소주'가 국내 공식 론칭했다.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고, 최고급 국내산 쌀과 지하 150m 천연 암반수를 활용해 전통 소주 주조 방식을 따라 만든 키소주는 화사하고 우아한 꽃 향과 부드러움 목 넘김이 특징. 공식 론칭 행사에 BTS 뷔 등을 포함해 수많은 셀러브리티가 방문해 축하의 자리를 빛냈다. 키소주는 22%와 38% 2가지로 출시되었다. 전국 백화점과 레드팅, 와인앤모어 등 주류 전문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kheesoju.com (ASG)

SMALL BAG

LOEWE 현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디자인한 '아마조나 16 스퀘어' 백은 기존의 '아마조나' 백 라인업 중 가장 작은 크기로 선보이는 최신작이다. 휴대폰, 열쇠고리, 작은 지갑 등 꼭 필요한 아이템만 담을 수 있는 사이즈로 디자인했다. 나파 카프 스킨 에디션은 클래식 블랙, 웜 데저트, 아보카도, 팝 오렌지 총 4가지 컬러로 출시하며, 애너그램 자카르 에디션은 네이비블루와 탠, 그린 컬러 중 선택 가능하다. 3213-2275

MOYNAT '플로리 나노' 백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콜라스 나이틀리의 데뷔 작품인 '플로

리'의 상징적인 잠금장치와 톱 핸들 디테일을 유지하고, 나노 사이즈로 축소해서 선보인 것. 보디 부분은 부드럽고 가벼운 토리옹 브러시 가죽으로, 안감은 펄라 카프 가죽 소재로 제작했다. 블랙과 플라밍고, 프러시안 블루 총 3가지 컬러로 만날 수 있으며,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내장되어 있다. 2254-4150 (CYJ)



TAG HEUER × PORSCHE

태그호이어와 포르쉐가 8월 11일 서울에서 특별한 론칭 이벤트를 개최했다. 컬래버레이션 작품 중 첫 스마트 워치로 출시하는 '커넥티드 칼리버 E4-포르쉐 에디션' 위치가 바로 그 주인공. 포르쉐의 전기차 모델인 타이칸에서 영감을 받아 블랙 & 블루 컬러로 완성했다. 같은 컬러 코드를 적용한 행사장에는 한국 앰배서더인 배우 위하준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548-6020 (CYJ)



영화 칼럼니스트의 책 3

<묘사하는 마음> 2017~2020년까지 김혜리 기자가 <씨네 21>에 연재한 글과 틸다 스윈턴에 대한 에세이 등을 담았다. 책에서 그는 영화 평론이라는 일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내게 해석은 묘사의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예기치 못하게 마주치는 전망 좋은 언덕과 같았다.” 섬세한 필체와 깊은 사유가 담긴 글을 통해 영화를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대상에 신중하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김혜리 지음, 마음산책 펴냄.

<어제의 영화. 오늘의 감독. 내일의 대화> 영화라는 총체적 예술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감독의 시선은 무수한 곳에 머무른다. 이야기의 토대인 시나리오 작법, 배우의 연기, 미술, 음악, 편집까지. 영화 저널리스트 민용준은 여성 서사를 다룬 동시대 감독 13인과 영화를 만들기까지 사적인 생각, 작업 과정, 제작 기법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벌새>의 김보라, <메기>의 이옥섭 등 국내 다양성 영화에 기여한 젊은 감독들의 심도 깊은 인터뷰를 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롭다. 민용준 지음, 사진 장성웅, 진풍경 펴냄.

<그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알려진 주성철 영화 전문 기자가 영화가 끝난 뒤 모두와 나누고 싶은 뒷이야기들을 글로 엮어냈다. 책 구성은 마치 전시장처럼 감독관, 배우관, 장르관, 단편관 등으로 나뉘는데, 특히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의 단편영화에 대한 신선한 시선과 홍콩 누아르 영화에 대한 애정이 돋보인다.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OTT 서비스를 켜 영화를 찾아보게 된다. 주성철 지음, 씨네 21 펴냄. (ASG)



PHOTOGRAPHER 이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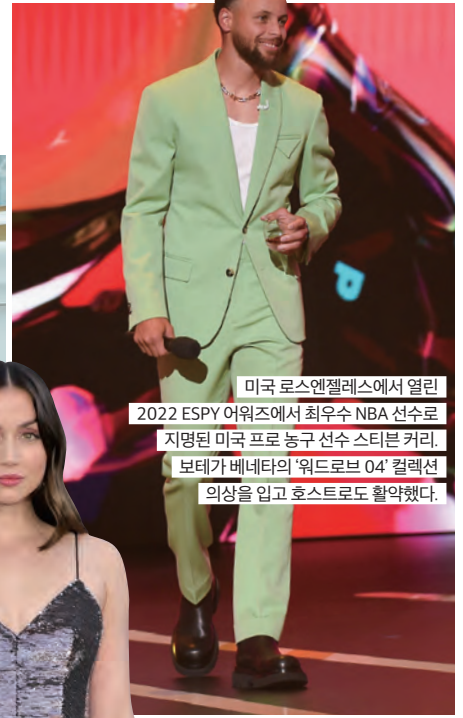
CELEBRITIES AT THE EVENT



브리티시 서머 타임(BST) 하이드 파크 축제에서 루이 비통의 커스텀 드레스를 입고 열창한 뮤지션 아델.



2022 F/W 시즌 맨즈 웨어로 재정비한 디올 성수 컨셉스토어에 등장한 가수 차은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2 ESPY 어워즈에서 최우수 NBA 선수로 지명된 미국 프로 농구 선수 스티븐 커리. 보테가 베네타의 '워드브 04' 컬렉션 의상을 입고 호스트로도 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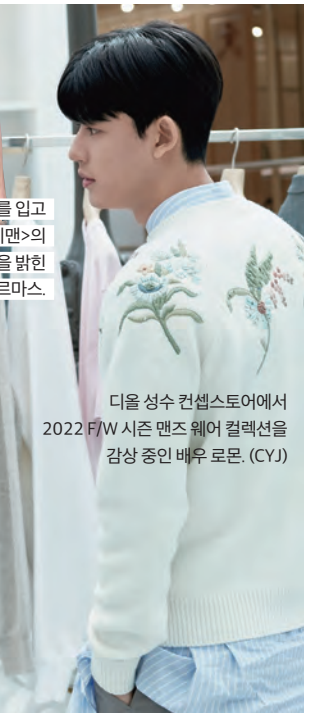
애플 TV 시리즈 <우먼 인 더 워터> 시사회에서 만난 영화배우 구구 바샤로. 드레이프 장식이 화려한 알렉산더 맥퀸의 폴리 파유Poly Faillie 드레스를 착용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 메건은 과감한 오프 숄더 드레스에 보테가 베네타의 파우치 백을 매치했다.



루이 비통의 글리터 드레스를 입고 영화 <그레이맨>의 LA 프리미어 현장을 밝힌 배우 아나데 아르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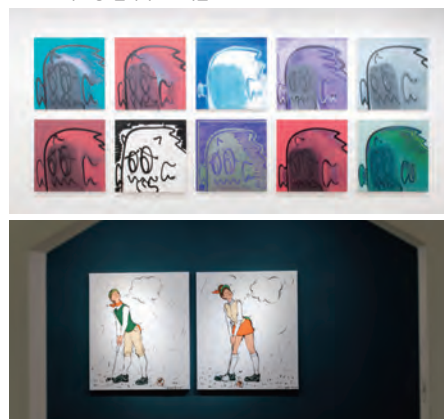


디올 성수 컨셉스토어에서 2022 F/W 시즌 맨즈 웨어 컬렉션을 감상 중인 배우 로몬. (CJ)

NEW EXHIBITION

<ID> 생동하는 색상과 투박한 선으로 내면의 캐릭터를 그리는 강석형 작가. 어린아이가 끄적인 듯한 단순하고 순수한 모습의 붓질에는 무의식 속 감정과 그의 어린 시절 소심한 성격, 엘리트 화한 현대미술계에서의 본인의 위치가 투영되어 있다. 갤러리ERD 서울과 부산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9월 4일까지.

<ID> 전시 전경. 갤러리ERD 서울.



<GOLF & ART> 전시 전경.

<GOLF & ART> 골프에 스며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전시다. 일상 속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에디션 아트 토이를 주로 소개하는 MGFS100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행복과 사랑의 모습을 짙은 긴 팔다리의 캐릭터로 표현하는 조각가 김경민이 골프를 주제로 작업을 펼쳤다. 트로피로도 손색없는 조각과 회화, 그리고 페인팅을 입힌 보스턴백까지 다양한 대상에 골프를 향한 애정과 따스한 시선을 담았다.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HDE)

SPECIAL

Cultural Spaces



in Seoul

온라인과 모바일로 모든 것이 대체되는 시대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매혹하는 공간이 있다.
확고한 기획과 건축 디자인,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총체적 경험을 제안하는 서울의 복합 문화 공간 7.

EDITOR 안서경·한동은 PHOTOGRAPHER 이경욱



PLATZ 2

성수동에 10여 곳이 넘는 상업 공간을 선보여온 크리에이티브 집단 팀포지티브제로(이하 TPZ). 지난해 TPZ는 그로서리, 레스토랑, 워크 플레이스 등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 '플라츠'를 연 데 이어, 최근 '플라츠2'를 오픈했다. 독일어로 광장을 뜻하는 '플라츠'라는 이름을 이어받은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플라츠2 역시 다채로운 공간을 구성해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데 집중한다. A동과 B동으로 나뉜 플라츠2는 외부 파트너와 협력해 일부 공간을 구성했다. 감도 높은 빈티지 가구를 소개해온 '원오 디너리 맨션'이 A동을 '아파트먼트풀'이라는 이름의 가구 렌탈 및 마켓 서비스 프로젝트로 채웠다. 가치를 지닌 가구를 선순환해 사용하기 위한 일념으로 상업 공간에 가구를 대여하거나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

B동은 기존 플라츠와는 비슷한 듯 다른 색깔의 세부 공간이 펼쳐진다. 1층에는 문구류와 디자인 서적 등을 판매하는 기프트숍 '로비'가 자리하고, 2~3층에는 '커런트'라는 이름의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하에는 디제잉 파티부터 팝업 이벤트까지 열 수 있는 '언더그라운드' 공간이 자리한다. 플라츠5에서 시도한 워킹 플레이스도 있다. 멤버십 회원만 점유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으로 감각적 가구들이 채워져 있다. TPZ는 멤버십 기반의 공간과 열린 공간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플라츠2를 통해 동시대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우는 실험을 지속하는 중이다.

📍 성동구 독성로17길 33 🌐 platz.kr



LCDC SEOUL

와자지결한 연무장길 골목 사이,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인상의 'LCDC 서울'에 들어서면 다른 시간의 차원으로 들어온 듯 고요한 감각이 느껴진다. 과거 자동차 정비소로 쓰인 공간을 탈바꿈한 이곳은 패션 브랜드를 전개하는 에스제이 그룹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카페 '자그마치', 복합 문화 공간 '오르에르' 등 성수동의 다양한 문화 공간을 기획해온 김재원 아틀리에 에크리튀 대표가 총괄 아트 디렉팅을 맡았고, 건축가 서승모와 공간 디자이너 구만재·임태희 등 탄탄한 내공의 실력자들이 공간 구성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야기 속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탈리아의 시인 잠 바티스타 바실레의 이야기 모음집에서 유래한 단어, 'Le Conte Des

Contes'의 앞글자에서 따온 이름처럼, LCDC 서울은 다채로운 브랜드들의 이야기들을 포용한다. 총 4층 규모의 건물 1층에는 카페 '이페메라'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뮤직 룸, 브랜드 팝업 공간 'DDMMYY'가 자리한다. 2층에서는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르콩트 드콩트'를 만날 수 있으며, 3층은 긴 복도와 양옆의 문을 마주해 설계한 '도어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수제 비누 브랜드 '한아조', 향 브랜드 '오이유' 등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6개의 브랜드 숍과 1개의 팝업 공간으로 구성된다. 맨 꼭대기 4층에는 공간 전체를 조망하며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루프톱 바 '바 포스트스크립트'가 있다. 별채 건물에서는 다양한 리빙 오브제를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숍 '르시트 피죤'도 만나볼 수 있다. 정돈된 공간을 탐험하다 보면 크고 작은 브랜드의 매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 성동구 연무장17길 10 ☎ 3409-5975





COMFORT SEOUL

후암동 골자락에 자리한 ‘컴포트 서울’은 오픈 전부터 제니, 정호연 등 셀럽들의 방문으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은 곳. 지금도 소월길로 바로 연결되는 루프톱에서 탁 트인 후암동 전경을 뒤로하고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없이 이어지고 있다. 포토그래퍼 김희준, 영상 필름 에디터 이태경, 패션 에디터 출신 이영우가 오픈한 곳으로 작은 디테일 하나 빼먹지 않은 다양한 콘텐츠로 가득하다. 4층 규모의 건물 설계는 2018년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한 ‘경계없는작업실’이 담당했다.

1층 스토어에서는 티셔츠, 미니백, 펜던트 등 PB 상품을 비롯해 국내외 개성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 중이다. 2층엔 전시 공간 ‘그라운드 바이 콤포트’가 자리한다. 8월 24일까지 진행한 자체 기획 전시에서는 색다른 자극으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와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앞으로는 크게 조명받지 못한 젊은 아티스트를 발굴해 소개하거나 브랜드 협업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4층에서는 ‘카페 콤포트’를 만날 수 있다. 유리잔과 세라믹 플레이트, 커피 원두까지 직접 제작한 세심함이 돋보인다. 커피와 디저트는 물론, 간단한 안주와 내추럴 와인을 고루 갖춰 낮과 밤 상관없이 방문하기 좋다. 매장 곳곳에서 키네틱 시노그래퍼 김은진의 키네틱 아트, 플라워 아티스트 눈코의 오브제, 아티스트 민성식의 그래피티 등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감각적인 작업을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 용산구 두텁바위로60길 45 🌐 comfortseoul.com



노우웨이브 디렉터 김승환

커뮤니티 플랫폼이 갖춰야 할 공간의 조건

노우웨이브 Know-Wave가 한국 론칭 2년 만에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커피를 마시고, 디제잉을 즐기며, 전시를 관람하고, 라디오 방송을 하기도 한다.
노우웨이브 서울을 이끌고 있는 김승환 디렉터와의 대화.



2012년 슈프림의 디렉터였던 에런 본다로프 Aaron Bondaroff가 뉴욕에서 설립한 커뮤니티 플랫폼 '노우 웨이브' 음악, 패션, 라디오, 출판, 전시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어주는 레이블이다. 스트리트 신에서 굵직한 입지를 다진 에런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버질 아블로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서브컬처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퍼져나갔다. 라디오로 시작한 레이블은 모란 갤러리 Moran Gallery를 설립하고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2월 노우 웨이브가 한국에 상륙했다. 모든 활동이 멈췄던 코로나 19 유행의 초반, 컨템퍼러리 의류 브랜드 '앤더슨벨'의 김도훈 공동 디렉터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노우 웨이브의 문을 두드린 것이 시작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고, 댄서·아티스트 등 현재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인물과 촬영한 라디오 방송을 업로드하며 점차 영역을 넓혀오던 노우 웨이브 서울. 마침내 지난 4월, 경리단길에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하는 오프라인 공간을 오픈했다. 1층에서는 의류를 판매하고 음악을 즐기며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2층은 카페와 바로 운영 중이다. 노우 웨이브 서울을 이끄는 디렉터 김승환을 만났다.

노우 웨이브 서울 론칭 후, 2년 만에 공간을 열었다. 커뮤니티의 중심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오프라인 플랫폼이 필요했다. 6개월을 찾다가 겨우 경리단길의 이 곳을 발견했다. 옥상에서 남산이 훤히 보이는데, 라디오 촬영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동부터 완전히 새로 짓느라 공사도 8개월 남짓 걸렸다. 앞으로 이곳에서 서브컬처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공간에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접근성보다는 브랜드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소통하기에 좋은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처음 온 사람들은 '여기가 뭐 하는 곳이야?'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곳이어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모임'과 '라디오'다. 모든 가구에 바퀴가 달려 있어 공간을 기능에 맞게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테이블이 의자

김승환 일본의 스니커즈 편집숍 '아트모스'를 서울에 론칭해 5년간 디렉터로 브랜드를 이끌었다. 현재는 노우 웨이브 서울의 공간과 콘텐츠 전반을 디렉팅하며, 노우 웨이브 라디오의 진행을 맡고 있다.

☞ 용산구 회나무로12길 8
☞ know-wave.net



가 되기도 하고, 작품이나 제품을 올리는 받침대가 되기도 한다. 1층 창문은 전부 폴딩 도어로 제작했다. 모두 개방해 파티를 열 수도 있고, 공개 라디오를 진행할 수도 있다.

공간이 생긴 뒤 브랜드에 변화가 있었나?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공간을 찾는 이들이 늘었고 매출도 크게 올랐다.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 정체성도 단단히 잡혀가는 것을 느낀다. 행사를 본 다른 브랜드로부터 러브 콜을 받는 것도 재밌는 변화 중 하나다. 제품 기획이나 전시 기획, 협업 요청 등 노우 웨이브가 생각보다 더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하고 있다.
노우 웨이브가 기획하는 행사는 어떻게 다른가? 뻘한 것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이다. 특히 회귀 식물 숍 '릴팜'과 함께 했던 팝업이 기억에 남는다. 파주 농장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회귀식물과 관련한 논문도 찾아보는 등 사전 준비를 정말 꼼꼼히 했다. 시간대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중간에 1시간가량 새소리만 틀고, 보태니컬 향의 인센스도 피워 동남아의 식물원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티스트 소금과 함께한 세션에서는 농부들이 비닐하우스에서 틀었던 클래식 음악을 듣는 음감회를 열기도 했다.

2021년 9월부터 라디오 업로드를 시작해 총 9편을 공개했다. 로킹 댄서 브라더 빈, <비슬라> 매거진 대표, 음악 프로듀서 아르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게스트 선정 기준이 있나? 재밌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들을 조명하려 한다. 한편으로는 주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들이 궁금하기도 하다. 새로운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 서비스나 서울 핫한 동네들을 꼭 잡고 있는 '인생네켓'은 어떤 이들이 운영하고 있을까 호기심이 생긴다. 우리의 시선에서 그들을 조명하면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올 것 같다. 사실 공유 킥보드 서비스 '스윙'은 이미 하반기 게스트 라인업에 있다.

10년 가까이 한국의 서브컬처 업계에서 활동해왔다. 최근 한국 언더그라운드 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전의 한국 언더그라운드 문화는 일본의 것을 모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오히려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일본에 전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요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느껴진다. 브랜드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추구한다. 보는 이들도 예전보다 편견 없이 각자의 취향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문화가 형성된 것 같다.

노우 웨이브의 최종 지향점이 궁금하다. 큰 파급력을 가진 플랫폼이 되고 싶다.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거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이들을 발굴해 조명하며 긍정적인 커뮤니티 문화를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EDITOR 한동은 PHOTOGRAPHER 이석영

FIGURE AND GROUND

세로수길의 한 코너, 붉은 벽돌의 웅장한 건물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피겨앤그라운드'는 카페와 편집숍, 그리고 공유 오피스가 모여 있는 총 7층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와이즈 건축사사무소의 전숙희 소장이 지은 지 30년이 넘는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며, 2021년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가장 시선을 끄는 요소는 건물의 중심부, 기존 엘리베이터 승강기로 쓰이던 공간을 개조한 원형 실린더다. 지하에서도 옥상의 자연광을 즐길 수 있고 각 층의 이야기가 전층을 관통하는 실린더를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저층부인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은 카페와 편집숍을 위한 상업 공간으로 사용되며, 지상 3층부터 6층은 코워킹 스페이스인 '로컬스티치 신사점'이 입점해 있다. 스페셜티 커피브랜드 '컨플릭트 스토어'와 미드센추리 모던 빈티지 가구 및 오브제를 선보이는 브랜드 '컬렉트'가 운영하는 '센트레 바이 컬렉트'는 1층에서 만날 수 있다. 6층에 당도하면 또 다른 F&B 공간이 등장한다. 로컬스티치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플레이리스트 플레이트'다. 순환제 예약 레스토랑을 표방하는 이곳에서는 전국 곳곳의 흥미로운 디저트 숍이나 셰프의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각 층에서 다채로운 팝업 행사가 이뤄지는 피겨앤그라운드는 언제든지 방문해도 새로운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변화무쌍한 공간이다.

📍 강남구 논현로153길 53

Photo: 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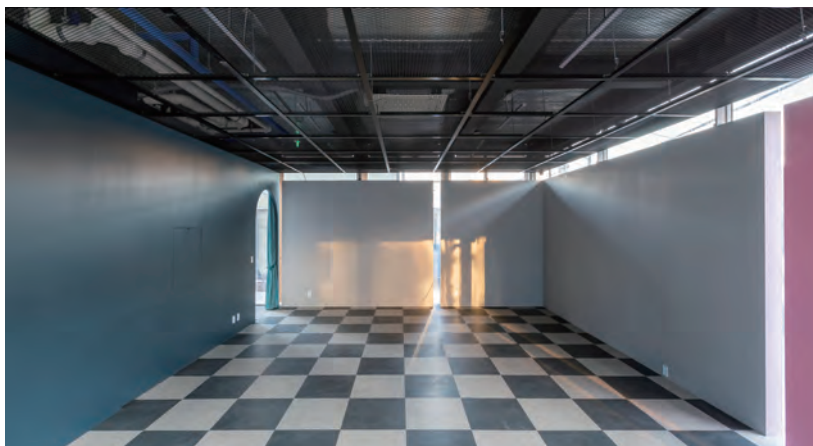


Photo: 노경





© 로컬 스티치



LOOP STATION IKSEON

익선동 한옥거리, 전통 기와 주택이 줄줄이 이어지는 골목 끝에 현대적인 건물 '루프스테이션 익선'이 자리한다.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를 표방하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콘텐츠 운영 회사인 '네오밸류'가 만든 도시 문화 공간이다. 탁 트인 2층 규모의 루프스테이션 익선은 연면적 681㎡의 메인 건물 '스페이스 A'와 176㎡의 '스페이스 B'로 이뤄져 있다. 두 동 모두 널찍한 루프톱을 갖췄는데 익선동 일대의 한옥 지붕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야외 공간이다.

사람과 지역, 온·오프라인의 무한한 연결이 이뤄지는 플랫폼이라는 뜻의 루프스테이션 익선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체험형 전시와 이벤트가 진행된다. 지난 5월에는 오픈과 동시에 현대자동차가 주관한 <팔리세이드 하우스> 전시가 이뤄졌다. 오프닝 파티에서 MZ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블루칩 작가 노보와 에디강이 라이브 퍼포먼스로 그린 페인팅이 여전히 건물 유리창을 채우고 있다. 패션쇼에서 착안해, 작품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런웨이 위의 옷을 보듯 관람할 수 있는 전시 <써킷 서울 #2 Omnipresent>를 8월 24일부터 5일간, 루프스테이션 익선 전관에서 개최한다. 김영광, 황다영 등 젊은 작가 23팀이 참여한 전시는 스페이스 A에서, '블러'·'오호스' 등 4곳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와 작가가 협업한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좁은 스페이스 B에서 만날 수 있다.

📍 종로구 익선동 137-6 1층 📞 070-8806-5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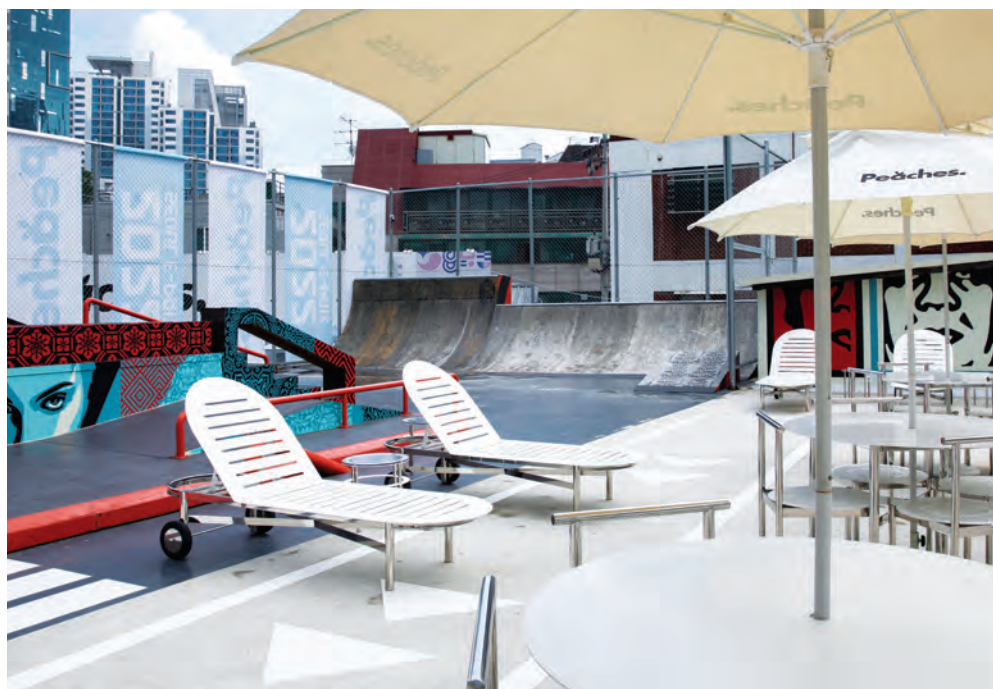
피치스 여인택 대표 자동차와 연관된 모든 상상이 이뤄지는 곳

자동차 문화에 기반한 스타트업 피치스의 철학은 간명하다. “You are what you drive.” 자동차가 나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 수많은 브랜드가 콜라버레이션을 제안하는 문화 공간 ‘피치스 도원’을 탄생시킨 여인택 대표가 꿈꾸는 다음 공간은 예상 밖이다.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사건의 중심에 피치스가 있다. 5년 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RWB(포르쉐 911의 차체를 불륨감 있게 튜닝하는 회사)의 행사를 감각적으로 편집한 스케치 영상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피치스. 이후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모델 N 브랜드의 글로벌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자동차에 붙이는 피치스 로고 스티커를 완판시키며 이른바 ‘피치스 팬덤’을 탄생시켰다. 눈길을 끄는 이벤트는 이뿐만 아니다. 리셀 플랫폼 ‘크림’과의 협업 행사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AMG를 경품으로 내거는가 하면, 게릴라 모임을 공지하자 성수고가도로에 450여 대의 차량이 모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8년 설립 이후 피치스가 선보여온 일련의 행보들은 스트리트 카 컬처 애호가들을 열광시키기 충분했다. 현재 피치스는 의류 브랜드를 선보이기도 하고, 기업 영상과 콜라버레이션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그동안 BMW M, 포르쉐 등 수많은 브랜드와 협업했으며, 매일 새로운 브랜드들이 피치스에 러브 콜을 보낸다.

온라인을 거점으로 삼던 피치스는 지난해 첫 오프라인 공간으로 성수동에 약 2300㎡(700여 평) 면적의 ‘피치스 도원’을 오픈했다. 이곳에는 노트드 도넛과 다운타운너가 입점해 있으며, 칵테일과 물 담배, 레이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모킹타이거’가 마련돼 있고, 옥상에는 스케이트보드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있다. 오픈 후 방문자 수만 해도 78만여 명. 자동차 문화에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는 피치스의 여인택 대표는 피치스 도원 이후의 공간을 구상 중이다.

공간을 논하기 전, 우선 당신이 이토록 자동차 문화에 매료된 된 계기에 관해 묻고 싶다. 첫 차를 구입한 뒤, 내가 차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타입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덧입히고 싶었고, 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길 바랐다.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동차 동호회에 갔는데, 패션이나 음악을 즐기듯 차를 라이프스





여인택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문화심리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석사를 마쳤다. F&B 회사 CNP푸드 그룹의 창업 멤버로 커리어를 시작해, 2018년 자동차 문화에 기반한 스타트업 '피치스'를 세웠고, 2021년 오프라인 공간 '피치스 도원'을 열었다. 8명의 멤버로 시작한 피치스는 현재 40여 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자동차와 관련한 행사를 기획하는 컬처팀, NFT 사업 등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다루는 비전팀, 브랜드팀 등으로 이루어진다.

타일 관점에서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그간 한국에서는 자동차 동호회 문화에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지. 시끄러운 배기음을 내며 난폭 운전하는 이미지. 이런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경험을 더 흥미롭게 바꾸는 일이 피치스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피치스 도원을 구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무조건 넓은 공간을 찾아다녔다. 자동차를 여러 대 대야 하고, 콘서트나 행사를 열어야 하는데, 100~200평으로는 부족했다. 다른 복합 문화 공간들이 정돈되고 완성된 느낌을 주는 반면 우리는 협업의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아, 낯것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자동차 스트리트 문화를 즐기는 이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일 테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웠다. 영상을 상영할 큰 LED가 필요했고, 음악을 좋아하니 파티 부스를 더하는 식으로. 가끔적 공간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않으려 했다. 누군가는 피치스 도원을 파티 플레이스로, 카페로, 도넛 가게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든 괜찮다. 그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길 바랐다.

유명 대기업이어도 피치스 도원에서 행사를 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왜 그렇게 협업 기준이 까다로운가? 우리는 자동차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니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원칙이 있다. 최근 '코카콜라 제로 스타더스트' 팝업 체험 존을 열었는데, 우리가 코카콜라와 협업한 기준도 같았다. 오래전부터 코카콜라는 자동차 레이싱 대회의 주요 스폰서였으니까. 그런 관계성이 맞아떨어져야 협업을 진행한다. 단순 대관은 지양하고, 브랜드 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협업을 선호한다. 아티스트 셰퍼드 페어리 Shepard Fairey가 방한했을 때 그의 그래피티로 공간을 채웠는데,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다. 자동차 문화 역시 스트리트 아트와 같은 맥락에서 파생된 문화이기 때문이다.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오피스 공간 한편에 자동차를 튜닝할 수 있는 작업실이 마련돼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독특한 디자인이 많다. 전속으로 계약된 크리에이터들의 실험적인 작업을 주로 다룬다. 자동차 차체 모형에 맞춰 3D 렌더링 디자인을 선보이거나, 3D 디자인을 2D 포스터 등으로 만드는 것을 '리버리 디자인 Livery Design'이라고 한다. 주로 해외 작가들이 많이 작업하는데, 전속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피치스의 파트너로서 디자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에이전시 역할을 겸하고 있다.

NFT 비즈니스도 함께하는데, 메타버스 같은 가상공간과 연관된 것인가? 피치스 멤버십을 NFT 형태로 운영한다. 올해 총 2000명에게 발행할 예정인데, 현재 1000명에게 부여한 상태다. 이 멤버들은 앞으로 피치스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찬반 투표에 참여하거나, 피치스의 굿즈 등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을 배분받는다. 우리를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한 데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온 팬들이 있었기에, 함께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자 한다. NFT를 활용해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를 운용한다는 표현이 맞겠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 당신을 설레게 하는 일을 꼽아본다면? 최근 4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자동차 생활>이라는 잡지의 라이선스를 인수했다. 2021년 9월 폐간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웠는데, 헤리티지가 깊은 회사의 상표와 출판권을 인수한 것이 무척 벅찬 일이다. 오래도록 쌓인 아카이브를 공유하고 싶고, 피치스의 이야기를 녹여내 복간하는 것이 과제다.

피치스의 다음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피치스 이후의 공간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는데, 카페나 상업 공간을 다루는 건 피치스 도원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8월 말에서 9월 초쯤, SK에너지와 협업해 성수동에 '피치스 주유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주유소에 관한 인식을 어떻게 신선하게 변화시킬지 기대해줄. 추후 지방의 주유소나 휴게소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장소들을 피치스답게 탈바꿈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EDITOR 안서경 PHOTOGRAPHER 이경옥

📍 성동구 연무장3길 9 🌐 peachesoneuniverse.com

Wish List

수확과 풍요의 계절이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각 분야의 기자들이 눈여겨본 9월의 신제품을 소개한다.



FENDI PICO BAGUETTE

몇 시즌 전부터 유행해 이제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마이크로 미니 백'. 카드나 명함, 립스틱 같은 기본 소지품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던 것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다. 외관은 엄연히 가방이지만, 보관 기능은 과감히 탈락시키고 '액세서리' 역할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마이크로' 아이템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펜디의 '피코 바게트' 참이 대표적이다. 에어팟이 담겼던 2020 S/S 시즌 모델과 달리 올해 신제품은 동전 몇 개만 담으면 속이 빠곡히 찰 정도로 작다. 블랙 새틴과 엘리게이터 레더, 시어링 등 F/W 시즌에 걸맞은 다양한 소재로 작지만 알찬 선택지를 마련했다. 항상 지니는 데일리 백에 걸어보자. 또 바지의 허리 부분이나 아일릿 장식을 단 아우터웨어 등 고리가 있는 의상 어딘가에 매치하면 남다른 한 켠이 되어줄 것이다.

EDITOR 최윤정

'피코 바게트' 참 블랙 새틴과 시어링 버전 가격 미정,
엘리게이터 레더 버전 100만 원대, 펜디(2056-9023)

ROUGE DIOR FOREVER STICK

울트라 피그먼트를 함유해 입술 위에 강렬한 색을 더하고, 가볍게 밀착되는 것은 물론 묻어나지 않기까지. 모두가 선망하는 완벽한 립스틱의 조건을 모두 갖춘 '루즈 디올 포에버 스틱'을 선보인다. 선명하게 발색되면서도 레드 피오니 추출물 등 풍부한 플로럴 립 케어 성분과 오일 성분을 함유한 덕에 입술이 하루 종일 편안하고 부드러운 것이 장점. 까나쥬 밴드를 장식한 미드나이트 블루 컬러 케이스는 하나의 쿠티르 오브제처럼 느껴진다. 무려 17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EDITOR 이지형

'루즈 디올 포에버 스틱', 5만3000원, 디올(080-342-9500)



SKIN CAVIAR HARMONY L'EXTRAIT

35년 캐비아 과학의 정수를 담은 '스킨 캐비아 하모니 렉스트레'를 새롭게 선보인다. 피부 탄력 및 퍼밍에 탁월한 효과를 지녀 피부 본연의 힘을 기르고 컨디션을 강화하는 인텐시브 프리세럼이다.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테크놀로지로 완성한 포뮬러가 바르는 즉시 가벼운 텍스처의 에센스로 변하면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실크처럼 매끄러운 피니시를 선사한다. 바우하우스에서 영감 받은 코발트블루 컬러의 패키지와 적정량을 완벽하게 덜어주는 기능성 캡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 EDITOR 정두민

‘스킨 캐비아 하모니 렉스트레’ 108만8000원, 라프레리(511-6626)



MADONE SLR 7 eTAP 7

“잘빠졌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슬림한 바퀴와 몸체, 유연하게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드롭 바 핸들. 포장 도로에서 잘 달릴 수 있는 바이크, 로드 레이스 바이크의 특징이다.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의 주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단연 공기저항일 것. 트렉 자전거 중 가장 짙싸고 가벼운 바이크 ‘마돈 SLR 7 eTAP 7세대’의 비결은 자전거 안장과 페달 사이에 놓인 파이프인 시트 튜브에 적용한 신기술 ‘아이소플로우’다. 도로 위 장애물 등 피로를 유발하는 모든 충격을 흡수해 보다 부드러운 주행을 허용한다. EDITOR 한동은

‘마돈 SLR 7 eTAP 7세대’, 1430만 원, 트렉(3460-0001)



Blue & Green

클래식의 반열에 오른 블루 다이얼 워치와 컬러 다이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그린 다이얼 워치의 다양한 면모.

BLUE IS THE NEW CLASSIC

시계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출시하는 다이얼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그리고 블루다.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덕에 범용성이 좋은 블루 다이얼은 항공 워치부터 다이버 워치, 드레스 워치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제는 트렌드의 범주가 아닌, 클래식의 반열에 올랐고 접목하는 소재와 세공 기법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구현되는 중이다.



CARTIER

블루 & 네이비 그라데이션 다이얼과 블루 합성 스피넬을 세팅한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베젤이 어우러져 화려한 면모를 드러낸다. '팬더 드 까르띠에'.



ZENITH

우주에서 얻은 영감과 몽환적 감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별이 떠 있는 밤하늘을 표현한 다이얼이 특징이다.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덕분에 취향에 따라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다. '데피 미드나잇'.



TAG HEUER

1930년대에 제작한 태그호이어의 대시보드 타이머에 현대적 해석을 곁들였다. 블루 다이얼 위에 두꺼운 렌즈와 빛을 반사하는 인덱스를 얹어 가독성을 끌어 올렸다. '까레라 데이트 29mm 칼리버 9 오토매틱'.



CHOPARD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스포츠 워치. 독수리 눈의 홍채를 닮은 갈바닉 블루 다이얼을 적용해 브랜드의 기술력과 미학을 강조하며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알파인 이글 XL 크로노'.



MIDO

건축물에서 영감 받은 컬렉션 출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시계. 대서양과 지중해를 경계 짓는 지브롤터 해협을 유로파 포인터 등대에서 영감 받은 디자인이 돋보인다. '오션 스타 리미티드 에디션'.



PIAGET

두께 4.3mm의 케이스에 베젤에는 다이아몬드를 빼곡히 두르고 오프센터 블루 다이얼을 적용해 고도의 위치메이킹 기술과 수준 높은 보석 세공 능력을 보여준다.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셀프와인딩'.



ROGER DUBUIS

블루 새틴 선버스트 다이얼을 가득 채우는 로만 인덱스와 아서 왕의 명검인 엑스칼리버에서 영감을 얻은 검형 시침 및 분침, 베젤에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강렬한 존재감을 내비친다. '엑스칼리버 36 오토매틱'.

GREEN IS THE NEW TREND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시계업계에도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린 다이얼이 컬러 다이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유행을 넘어 클래식의 영역으로 넘어간 블루 다이얼 시계의 자리를 대신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초록색과 민트, 연두, 올리브 그린 등 광범위한 컬러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스타일을 넘나든다.



LONGINES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 달의 동그란 모양을 본뜬 디자인이 특징. 은은한 그린 톤 다이얼과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의 형상을 그대로 옮긴 문페이즈 디스플레이가 시계에 우아한 한 곳을 더한다. 론진 프리마루나.



CARTIER

탱크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에서 모티프를 딴 '탱크' 컬렉션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우리 곁을 지키며 발전해왔다. 그중 현대적 분위기와 깔끔한 라인을 더욱 강조한 그린 래커 다이얼 버전. '탱크 머스트 라지'.



MONTBLANC

'그라페 부아제' 기법으로 몽블랑산의 빙하 질감을 구현한 그린 다이얼이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을 자아낸다. 수심 300m 방수와 스크루다운 크라운, 단방향 회전 베젤 등 다이버 워치의 조건을 두루 갖췄다. '1858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



BVLGARI

방사형으로 퍼지는 세틴 솔레일 처리의 그린 래커 다이얼이 눈에 쏠린다. 화려한 미감을 선보이는 불가리만의 미학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불가리 불가리 레이디'.



HUBLOT

올리브 그린 다이얼과 러버 위에 엘리게이터 레더를 덧댄 스트랩이 통일성을 이룬다. 독자 개발한 킥 골드 케이스와 조화로운 합을 보여준다. '클래식 퓨전 그린 컬렉션'.



BREITLING

민트 컬러 다이얼과 스테인리스스틸의 단순한 조합이 스포티하면서도 캐주얼한 분위기를 끌어 올린다.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브라이틀링 칼리버 10'을 탑재했다. '크로노맷 오토매틱 36'.



OMEGA

푸른빛이 감도는 그린 컬러 다이얼이 독특하다. 1만5000가우스 이상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항자성을 입증했다.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4mm'.

EDITOR 홍혜선 ASSISTANT 차세연

His Scent

살며시 스치기만 해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향기가 있다. 내 남자에게도 그런 향기가 나면 어떨까?
2030 여성들을 대상으로 남자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향수에 대해 물었다.

계절과 상관없이 남자 친구에게
혹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향수는 무엇인가요?

2022년 7월 19~30일 '럭셔리 에디터스'
SNS(@luxuryeditors)를 통해 향수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 3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WOODY

묵직하면서도 잔향이 은은한 우디 계열의 향 174명

51.7%

2 CITRUS

청량하고 시원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 120명

35.6%

3 LEATHER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알싸한 레더 계열의 향 44명

12.7%

1 WOODY TYPE

우디 계열의 향은 첫 노트에 묵직하면서
중후한 느낌을 주지만 은은한 잔향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세련되고 부드러운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선호하는 향이다.

프라이빗 블렌드 에벤 퓨메 오드 퍼퓸 타오르는 목재,
나무에 맺힌 송진의 향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여기에 블랙 페퍼와
흙 내음이 더해져 관능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톱 포드 뷰티.
소바쥬 오드 퍼퓸 광활한 대지와 자연에서 영감 받아 대담하고
강인한 남성성의 이미지를 향으로 구현했다. 신비로우면서도
거친 우디 향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디올.
겐조 움브 오드 투왈렛 상쾌한 소나무 향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다의 향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푸른 대나무에서 영감 받은 보틀이 소장 가치를 높인다. 겐조.
블루 드 샤넬 빠르팡 아로마틱 우디 계열의 향수. 샌들우드와
시트러스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해 전형적인 남성 향수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향을 선사한다. 샤넬.



2 CITRUS TYPE

향수 취향에서 성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요즘, 청량하고 톡 쏘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은 특유의 중성적인 매력 때문에 섬세하고 다정할 것 같다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커플 향수로도 추천한다.

세드라 37 르 라보의 열다섯 번째 시티 익스클루시브,

'베를린'을 담은 '세드라 37'은 세드라와 진저의 섬세한 균형이 돋보인다. 상쾌함은 물론 설렘에 절인 듯 중독적인 새콤달콤한 향이 후각을 자극한다. 르 라보.

오데 쌍오드 뚜왈렛 꽃부터 잎, 열매 그리고 줄기까지 오렌지 나무 한 그루를 향수 한 병에 담았다. 꽃의 향긋함은 물론 오렌지의 달콤함, 줄기의 싱그러움을 모두 느낄 수 있다. 딥티크. 라이트 블루 이탈리아 러브 부르 옴오드 뚜왈렛 햇빛 내리쬐는 지중해에서 휴가를 보내는 연인의 열정적 사랑에서 영감 받아 탄생했다. 자몽의 풍부한 과즙을 표현한 시트러스 노트와 캐시미어 우드 노트가 감각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돌체앤가바나. 미스터 마블러스 오드 퍼퓸 만다린잎과 네롤리의 산뜻하고 상쾌한 시트러스 향에 블랙 앰버의 알싸함이 적절하게 믹스되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깔끔한 슈트를 즐겨 입는 남성에게 추천한다. 바이레도.



3 LEATHER TYPE

우디 계열 향보다 더 묵직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레더 향은 호불호가 나뉘기도 하지만 남성적인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다면 레더 향만 한 것이 없다.

프라방 디 오키드 맨 오드 퍼퓸 거칠지만 신사적 스포츠인 복식에서 영감을 받아 강렬하면서 우아한 느낌을 선사한다. 블랙 페퍼의 알싸함을 시작으로 레더 어코드와 파출리, 블랙 앰버 등이 어우러져 신선하다. 퍼퓸 프라방 by 리퀴드 퍼퓸바. 아르마니 프리메 라 콜렉시옹 퀴르 아메티스트 오브제로 쓰이는 최고급 가죽의 관능적이고 애니멀리한 향을 떠올리며 만들었다. 코리엔더의 세련되면서 풍성한 향이 자작나무의 은은한 향과 만나 오랫동안 우아한 잔향을 남긴다. 아르마니 뷰티. 오리엔탈 레더 오드 퍼퓸 오만 와히바 사막의 황금빛 모래와 햇빛이 내리쬐는 알하자르 산맥의 봉우리에서 영감 받아 포근하면서 스파이시한 라벤더 향기, 그리고 드라이한 시나몬 향기로 이어져 개운한 느낌이다. 메모 파리. 메스퀼린 플루리엘 인도네시아의 파출리, 베티베르의 우디 베이스 노트를 기반으로 부드러운 가죽 향이 깊이감을 더한다. 클래식 하면 떠오르는 푸제르 향이 돋보이는 남성 향수. 메종 프란시스 커징.

EDITOR 정두민 PHOTOGRAPHER 염정훈 ASSISTANT 이다희 COOPERATION 겐조(080-344-9500), 돌체앤가바나(080-564-7700), 디올(080-342-9500), 딥티크(3479-6049), 르 라보(541-7945), 메모 파리(3449-5303), 메종 프란시스 커징(6905-3769), 바이레도(3479-1688), 샤넬(080-805-9638), 아르마니 뷰티(080-022-3332), 톰 포드 뷰티(6971-3211), 퍼퓸 프라방 by 리퀴드 퍼퓸바(1800-5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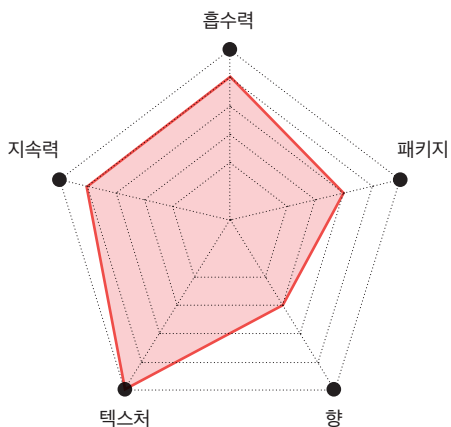
New Liquid Lips

4개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리퀴드 립을 뷰티 피플이 직접 사용·평가해봤다.



데코르테 '루즈 데코르테 리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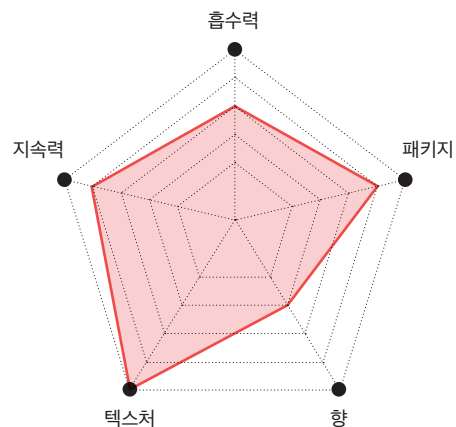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리더니, 제대로 바른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가볍게 밀착된다. 살짝 묻어나지만 밀착력 하나는 일품. 그야말로 자석 같은 '착붙 립'이다. 텍스처는 하루 종일 편안하며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붉은빛이 입술에 물들어 여러 번 덧바를 필요도 없다. 기존 리퀴드 제품 특유의 끈적임이나 부담스러운 광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애림 뷰티 콘텐츠 크리에이터. 은은한 광택과 고급스러운 윤기가 느껴지는 립 아이템을 선호하지만 보송하게 마무리되어 입술이 끈적이지 않는 제품을 주로 선택한다.

지방시 뷰티 '로즈 퍼펙트 리퀴드 밤'

바르는 순간 마치 입술에 립밤을 바르는 것처럼 편안한 질감에 감탄하게 된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는 립 아이템이 아닐지. 촉촉한 립 아이템은 보통 발색력이 약한 것이 단점인데, '로즈 퍼펙트 리퀴드 밤'은 그런 문제점을 극복했다. 한 번만 발라도 풍부한 색을 내기 때문에 하루에 수정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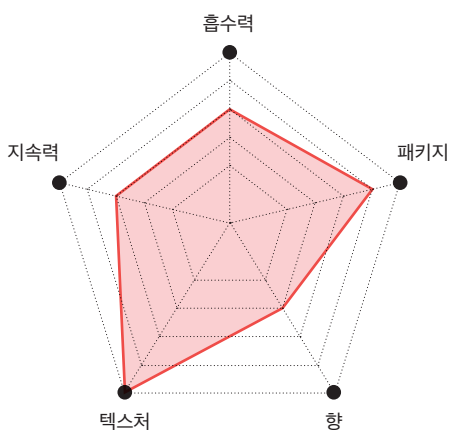


박수연 프리랜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명하게 발색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매트한 제형은 입술이 건조해져서 구입하지 않는 편. 발색력과 지속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클라랑스 '립 컴포트 오일'

피부는 물론이고 입술까지 극도로 건조한 편이다. 호호바 오일, 로즈 오일 등을 함유한 이 제품은 따로 입술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촉촉한 것이 특징이다. 색이 지나치게 강렬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수채화처럼 은은한 색감이 더해지는 것도 장점 중의 장점. 부드러운 제형 덕에 입술뿐만 아니라 양 볼에 블러셔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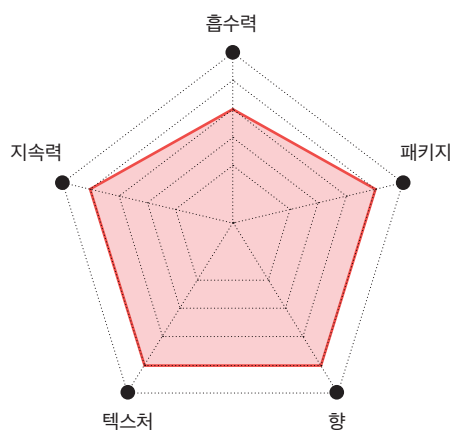


차경민 <싱글즈> 디지털 콘텐츠 에디터. 매트한 것 보다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제형이 좋은 립 아이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립, 치크, 베이스 모두 맑은 발색을 선호한다.



디올 '어딕트 립 틴트'

입술에 닿으면 마치 부드럽고 촉촉한 솜사탕처럼 녹으면서 완벽하게 밀착된다. 한 번 바르고 6~7시간 정도는 거뜬히 지워지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고 건조하거나 입술이 갈라지지도 않는다. 디올 로고를 새겨 쿠티르 감성이 느껴지는 패키지는 물론 마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것 같은 가벼운 제형도 만족스럽다.



전예별 세트 & 프로프 스타일리스트. 작업을 시작하면 메이크업을 수정할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어어나거나 지워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립 아이템을 주로 사용한다.

Authentic Tapas Bar

술과 곁들여 간단히 먹는 한 입 요리 타파스. 스페인과 일본 음식을 작은 접시 위에 구현한 서울의 타파스 바 2곳을 찾았다.



일본 가정식 타파스 오마카세, 오카즈

- 📍 종로구 자하문로 49-1
- 🕒 화~토요일 오후 6~10시,
일·월요일 휴무
- ☎ 725-5454

서촌에 위치한 '오카즈Oh!kaz'는 편안한 일본 가정식 반찬을 타파스 오마카세로 풀어내는 곳이다. 영화 <카모메 식당>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10가지 타파스로 표현하는 셰프의 이야기를 찬찬히 즐길 수 있다. 이헤지 오너 셰프는 일식을 배우기 위해 무작정 떠난 도쿄에서 2년 반가량 머물며 요리를 배웠다. 유명 셰프부터 쿡킹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선생님, 동네 전통 맛집 등을 찾아가 일본 가정식을 배우고 싶다며 문을 두드렸다고. 그가 내어주는 음식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진정한 일본 로컬의 비법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10가지 메뉴는 산뜻한 식전주와 어울리는 '오카즈 3종'으로 시작한다. 참나물 위에 직접 만든 참깨 소스를 올린 무침, 껍질 벗긴 토마토와 참치 샐러드, 매실 잼을 활용한 특제 소스를 곁들인 메뉴, 클래식한 감자 샐러드 위에 야키니쿠를 얹은 반찬으로 구성했다. 마무리는 밥을 차에 말아 먹는 '오차즈케'다. 매일 다른 재료로 술밥을 짓고 유기농 호지차와 가쓰오부시로 깊은 맛을 낸 찻물을 부어 먹는다.



1 입맛을 돋우는 '오카즈 3종'과 동해산 단새우, 북해도산 연어알조림을 활용한 '단새우 세비체'. 새우 아래의 간장 고추냉이 드레싱에 절인 레몬과 라임을 함께 먹으면 산뜻하다.

2 참소라 술밥 위에 유기농 호지차와 가쓰오부시로 우린 찻물을 부어 먹는 '오차즈케'.



DESIGN SPOT

#오늘의집 #디자인스팟

디자인 스팟은 <럭셔리>, <럭셔리M>, <행복이 가득한 집>, <디자인>, <스타일 H> 등을 발행하

는 디자인하우스의 에디터와 마케터가 선별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상업 공간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플래그십 스토어, 편집매장 등 콘셉트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모아 각 매체의 지면과 SNS를 통해 소개합니다. 디자인 스팟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 (@designspot.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골목의 맛, 타파코파

- 용산구 한강대로54길 29
- 화~금요일 오후 5시~11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30분~밤 12시
일·월요일 휴무
- 6369-8521

스페인 타파스바, '타파코파Tapacopa'가 삼각지 골목길을 바르셀로나 분위기로 물들이고 있다. 이국적인 외관에 놀라긴 이르다. 지하로 내려가면 아치형 천장과 중세 시대풍 벽화를 수놓은 타일 벽에 시선을 빼앗기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등장한다. 김현우 대표는 이곳을 사교 클럽을 만들고 숨겨진 장소에 모여 서로 요리를 대접하는 스페인 북부의 식문화, '초코Txoko'에서 착안한 공간이라고 소개한다. 메뉴는 핀초Pincho, 타파스Tapas, 플라토Plato로 나뉜다. 바게트 위에 작은 요리를 얹은 '핀초 세트'는 크림치즈 위에 블랙 올리브 페스토와 버무린 홍합을 올리고 섀롯 피클로 마무리한 '홍합 핀초', 달콤한 당근 튀레 위에 발사믹·세리 식초로 졸인 새콤한 가지와 페타치즈를 얹은 '가지 핀초', 꿀 토마토 소스와 양파 처트니, 새우를 조합한 '새우 핀초'로 구성했다. 김 대표가 바르셀로나에서 맛본 타파스를 구현한 '갑오징어'는 마늘 오일에 갑오징어를 구워 매콤한 피멘토로 마무리했다.

EDITOR 한동은 PHOTOGRAPHER 박성연

- 1 가장 인기 있는 핀초로 구성된 '핀초 세트': '홍합 핀초', '가지 핀초', '새우 핀초'.
- 2 '갑오징어'는 함께 제공하는 레몬을 뿌려 먹으면 감칠맛이 더해진다.
- 3 플라토 '꿀 대꾸'는 대꾸 위에 아이올리 소스를 얹어 더욱 부드럽고 꿀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달콤하다.

도심 한복판의 고품격 주거 공간, 브라이트 N40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에 '고급 임대 아파트'를 표방하는 주거 단지가 등장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공간에서 특급호텔 못지않은 서비스를 누리며 프라이빗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곳.
디벨로퍼 (주)신영이 선보이는 어번 하우스 '브라이트 N40' 이야기다.





하이엔드 주거의 새로운 정의

강남 한복판에서 탁 트인 하늘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초록 나무를 마주한 채 식사를 즐기는 일상. ㈜신영이 선보이는 ‘브라이트 BRIGHTEN’은 도심 한가운데서 프라이빗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당신의 눈부신 삶’을 모토로 2019년 브라이트 여의도, 2021년 브라이트 한남에 이어 올해 8월 서울 강남구에 브라이트 N40을 선보였다.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프랑스 LVMH 신사옥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 Jean-Michel Wilmotte가 건축과 조경 디자인을 맡아 고대 로마 양식과 한국적 여백의 미가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완성했다. ‘면’과 ‘선’, 흑백의 대비가 단정한 인상을 전하는 파사드, 천연 석재로 마감한 우아한 외관, 한국의 고전 조경을 은유하는 소나무 숲 등을 비롯한 건물 주변의 풍부한 조경 등이 시선을 붙든다. “시대를 초월한 고급 주거란 녹지와 예술을 담고, 건축물의 모양과 크기, 채광과 지면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인간의 척도’로 고려한 것이다.” (주)신영 측의 설명이다. 브라이트 N40은 지하 4층, 지상 5~10층 규모로 이뤄진 총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심 한복판에 자리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단지 뒤로는 약 3만㎡ 규모의 학동근린공원이 위치하며, 주변에 호림아트센터를 비롯한 예술 공간과 상업 시설도 다채로워 도심 속 프라이빗 라이프를 누리기에 제격이다.





도심 속 테라스 라이프

입지와 외관에서 드러나는 브라이튼 N40의 '인간 중심' 설계는 내부 공간으로 이어진다. '갤러리 하우스' 콘셉트를 기반으로 엄선한 자재를 활용해 '선의 미학'을 구현한 총 148세대를 구비했다. 개별 세대는 크게 '모던하우스Modern House'와 '헤리티지 펜트Heritage Pent' 2가지 스타일로 나뉜다. 이 중 140세대에 이르는 모던하우스는 30평~63평을 아우르는 10개 타입의 다채로운 평형대가 특징. 가족 구성원의 개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최적의 동선을 세심하게 반영했으며, 탁 트인 창 너머로 펼쳐지는 도심의 마천루와 주방·욕실 등 작은 창을 통해 마주하는 녹음이 특히 인상적이다. 브라이튼 N40의 품격을 대변하는 헤리티지 펜트는 총 8세대로, 각 세대가 모두 다른 구조로 이뤄져 있다. 63평~90평에 이르는 넉넉한 공간을 시원하게 활용해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는 개별 테라스를 갖춰 특별함을 더했다. 각 세대에는 스마트 시스템과 빌트인 가전·가구를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태블릿 PC형 월패드를 적용해 실내 공간 어디에서든 조명, 에어컨 등을 편리하게 컨트롤 할 수 있고, 독일 명품 주방가구 지메틱SieMatic·친환경 소재로 유명한 이탈리아 주방 가구 아크리니아Arclinea·심플한 주방 가구의 대명사 불탑Bulthaup을 세대별로 배치했으며, 편리한 음식물 배출 시스템을 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완성했다. 욕실에는 이탈리아 토털 솔루션 브랜드 제시Gessi의 수전을 적용하는 등 디테일에도 신경 썼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디테일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특급 호텔 못지않은 어메니티도 브라이트 N40의 매력 포인트다. 단지 외부부터 세대 입구까지 400만 화소 QHD급 영상 시스템과 동체 감지기 등 3중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에 세심하게 신경 썼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어메니티 시설도 다채로운데, 피트니스와 골프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 '웰니스 라운지', 사교 파티나 소규모 모임에 활용하기 좋은 오픈 키친을 갖춘 '프라이빗 라운지', 공유 오피스 형태의 'CEO 라운지' 등이 대표적이다. 입주민에게는 (주)신영의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계열사 '에스엘플랫폼'이 전개하는 주거서비스도 제공한다. 버틀러 서비스와 리무진 라이딩은 기본. 룸 클리닝과 세탁, 아이 돌봄, 펫 케어, 세차, 장 보기는 물론 전등을 수리하거나 칼을 갈아주는 등의 일상 서비스까지 살뜰히 챙겼으며, 전담 서비스 팀을 통해 공연, 여행, 골프 라운딩 등을 예약하거나 출장과 사교 모임을 위한 스케줄링도 대행할 예정이다.

'고급 임대 아파트' 브라이트 N40은 올해 상반기 모든 시설의 공사를 완료해 2022년 8월부터 입주를 개시했다. 덕분에 현재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공간을 직접 살펴본 후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인 브라이트 라운지에 방문하면 개별 세대와 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DITOR 김수진 PHOTOGRAPHER 이경욱(세대 공간 사진)
COOPERATION (주)신영(1577-0889)



손목을 두 번 감싸는 디자인의 '세르펜티 스피가 세라믹'.



Geneva Watch Days

불가리가 8월 말 열리는 '2022 제네바 워치 데이'에서 10개의 신제품을 공개한다. 대비의 미학을 강조한 '세르펜티' 여성 컬렉션과 다양한 색감의 골드로 스펙트럼을 확장한 '옥토 피니시모' 남성 컬렉션 등을 만날 수 있다.

SERPENTI FOR WOMEN 뱀의 머리에서 영감 받은 케이스와 손목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메시 브레이슬릿이 특징인 불가리의 '세르펜티' 여성 라인이 블랙 컬러를 만났다. 손목을 두 번 감싸는 디자인의 '세르펜티 스피가 세라믹'은 38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에 15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랙 세라믹 브레이슬릿을 조합해 극적 대비를 연출했다. '세르펜티 세두토리 두르비옹' 모델은 화이트 골드 케이스 전체를 다이아몬드로 세팅하고, 베젤에는 대조적인 블랙 스피넬 젬스톤을 적용했다. 육각형 링크 브레이슬릿 곳곳에 자리한 블랙 젬스톤도 착용자가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묘미다. '세르펜티 세두토리' 모델 역시 DLC 블랙 코팅으로 완성한 케이스와 로즈 골드 베젤의 이색적인 조합이 눈길을 끈다. 클래식한 버전 혹은 베젤에 38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보다 화려한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다이아몬드와 블랙 젬스톤 세팅이 화려한 매력을 전하는 '세르펜티 세두토리 두르비옹'.



DLC 블랙 코팅 케이스와 로즈 골드 베젤이 우아한 조화를 이루는 '세르펜티 세두토리'.

OCTO FINISSIMO FOR MEN ‘옥토’ 컬렉션은 고대 로마의 주요 건축 유산에서 영감을 가져왔다. 팔각 케이스와 부드러운 원형 베젤이 이루는 기하학적 대비가 인상적. 그중에서도 얇은 두께로 일련의 신기록을 세운 ‘옥토 피니씨모’는 불가리의 파인 워치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불가리는 옥토 컬렉션 탄생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골드를 입힌 옥토 피니씨모 신제품으로 이를 기념한다. ‘옥토 피니씨모 스켈레톤 8 데이즈’는 워치 메이커와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고안한 매뉴팩처 무브먼트 ‘BVL 칼리버 199 SK’를 적용했다. 광택을 입혀 매끈하게 처리한 지름 40mm 크기의 로즈 골드 케이스를 장착했고, 화색빛 엔트러사이트 위에 골드 아워 마커를 장착해 가독성을 높였다. 여기에 폴딩 클래스트를 갖춘 브라운 컬러의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일 예정. 8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장하며 수심 30m까지 방수가 가능하다. ‘옥토 피니씨모 오토매틱’은 로즈 골드 케이스와 브라운 다이얼의 조화가 강렬한 인상을 전한다. 여기에 2.23mm 두께로 제작한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의 ‘BVL 칼리버 138’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로즈 골드와 옐로 골드의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옐로 골드 버전은 미국의 첫 불가리 부티크 오픈 50주년을 기념해 50피스 한정판으로 미국 시장에서만 소개할 예정. ‘옥토 피니씨모 크로노그래프 GMT’도 우아한 색감의 로즈 골드 소재로 새롭게 출시한다. ‘BVL 칼리버 318’로 구동하는 이 제품은 두께가 3.3mm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워치다.

ASSISTANT EDITOR 차세연 COOPERATION 불가리(2056-0170)



글로벌 워치 앰버서더 로렌조 비오티와 함께한 새로운 옥토 브랜드 캠페인.



얇은 두께와 실용적인 GMT 기능이 돋보이는 ‘옥토 피니씨모 크로노그래프 GMT’.



골드 아워 마커로 가독성을 높인 ‘옥토 피니씨모 스켈레톤 8 데이즈’.



로즈 골드 케이스와 브라운 다이얼을 매치한 ‘옥토 피니씨모 오토매틱’.

Premium Home Device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홈케어 디바이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크. 뷰티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토털 뷰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레빗 프레스티지 & 하이드로 글로우 크림 토너 패드

환하게 빛나는 피부의 첫 번째 조건은 매끈한 피복결이다. 정밀한 다이아몬드 팁으로 피복 결을 개선하고 모공 탄력에 도움을 주는 실크의 '레빗 프레스티지'는 손으로 없애기 어려운 미세한 피지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빛나는 광채를 선사한다. 다이아몬드 성분을 활용한 팁으로 묵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탈락시키고 3단계 진공 흡입력으로 피지를 흡수해 모공 탄력에도 도움을 준다. 용도에 따라 맞춰 쓰는 4가지 타입의 팁은 민감하고 좁은 부위부터 넓은 부위의 보디 피부까지 사용 가능하다. 여기에 새롭게 출시하는 '실크 뷰티 하이드로 글로우 크림 토너 패드'를 함께 이용하면 얼굴에 남아 있는 각질도 정리하고, 크림 에센스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결광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 칙칙한 피부가 고민이라면 셀프케어가 가능한 레빗 프레스티지를 추천한다.

페이스 타이트 3.0

마스크로부터 조금은 해방되었지만 늘어진 피부 탄력과 거칠어진 피붓결로부터는 좀처럼 해방되기가 쉽지 않다. 실크의 '페이스 타이트 3.0'은 바이폴라 고주파 에너지와 LED 레드 라이트, 열에너지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해 피부 속 탄력을 회복시킨다. 고주파 에너지는 피부 온도를 43°C까지 끌어올려 진피층을 자극하고 8개의 LED 라이트가 콜라겐 생성까지 촉진해 피부 탄력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P&K 피부임상연구센터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얼굴 피부의 주요 고민인 팔자 주름, 목 라인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컨디션이 저하되는 환절기에 더욱 확실한 스킨케어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다이아몬드 프레스티지 마스크 팩'까지 놓치지 말자. 미백과 주름 개선에 탁월한 다이아몬드 파우더 성분을 함유해 얼굴부터 관리가 어려운 목까지 꼼꼼하게 케어 가능하다. 가정용 인모드 '페이스 타이트 3.0'과 풍부한 스킨케어 성분을 담은 '다이아몬드 마스크 팩'으로 빛나는 피부 탄력을 경험해보자.

EDITOR 정두민 PHOTOGRAPHER 엄정훈 COOPERATION 실크(080-246-1234)



Beyond Beauty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방을 가꾸고자 한다면 삼성동에 새로 오픈한 ‘유브클리닉’을 기억할 것.
전 서울대병원 교수진이 프라이빗하고 편안하게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대병원에서 재직 시 수많은 환자를
만났기에 유방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을 비롯해 유방과 관련된
모든 걱정을 한곳에서, 보다 편안하게 해결하고자
‘유브클리닉’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_ ‘유브클리닉’ 정지광 대표원장

‘유브클리닉’ 대표원장인 정지광 유방외과 원장과 권보라 유방영상의학과 원장.

유방외과와 유방영상의학과를 함께 구성한 유방 특화 센터

서울대병원 유방외과, 유방영상의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한 정지광·권보라 원장은 세심하고 전문적인 유방 관련 진료 및 수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삼성동에 유방 전문 의원 ‘유

브클리닉’을 개원했다. 서울대병원 재직 시 유방외과와 유방영상의학과와의 협진으로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던 경험에 착안한 ‘유브클리닉’은 바쁜 대학 병원의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 섬세하고 따뜻한 케어까지 신경 쓴 것이 특징이다. 유방외과 정지광 원장의 가슴성형클리닉에서는 ‘내츄럴라이시스

Naturalysis' 테크닉을 통해 가슴 확대술, 보형물 제거술, 가슴 축소술 등을 진행한다. 내추럴라이시스란 내추럴Natural과 유착 박리술Adhesiolysis의 합성어로 전기 소작기 없이 오직 손과 기구만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섬세하게 진행하는 수술 서비스를 의미한다.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수술 후 장액종 같은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른 편이다. 유방 건강이 우려된다면 '유브 리본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기본 유방 검진을 비롯해 고위험군 검진, 예비 엄마 유방 검진, 출산 후 유방 검진, 여성호르몬 특화 검진, 면역 기능 특화 검진 등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어 개인 니즈에 꼭 맞춘 검진을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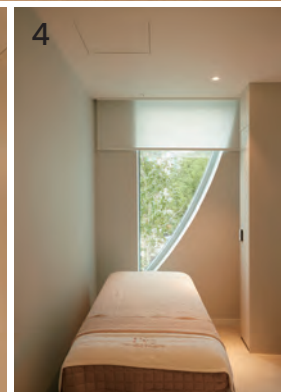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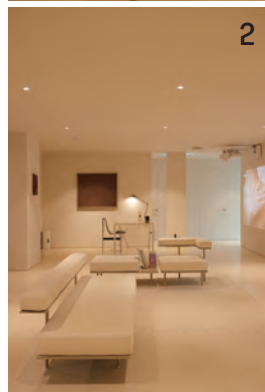
전 서울대병원 교수진이 이끄는 유방 특화 센터

'유브클리닉'의 강점은 유방외과와 영상의학과를 한 공간에서 프라이빗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서울대병원 교수진이 서울대병원과 동일한 시스템과 장비를 사용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서비스한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10월엔 '3차원 입체정위 조직검사 시스템HOLOGIC Affirm Prone Biopsy System'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장비를 보유한 병원이 많지 않아 대학 병원에서도 대기가 길었던 미세석화 조직 검사를 더욱 여유롭게 받을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석화의 병리적 진단이 필요할 경우나 3차원 입체정위 조직검사 등을 누워서 할 수 있으며, 360도 유연하게 유방을 검사할 수 있다. 또 사진 촬영을 최소한의 횟수로 진행해 방사선 피폭량과 검사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방 관리의 모든 것

'유브클리닉'은 모든 여성이 아름다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선사하는 병원이 되고자 한다. 이에 가슴 수술에 앞서 본인의 가슴이 건강한지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만족감은 높으면서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술을 디자인 및 진행하고 모든 진료는 예약제로 운영한다. 특히 가슴 수술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형 가슴 전문 케어 프로그램인 '비욘드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 구형구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캡슐러티스, 가슴 LDM, 힐라이트 등의 기기 관리와 수술 후 부종을 관리하는 '브레스트 쿨링 트리트먼트' 등 가슴 전문 테라피스트의 세심한 가슴, 페이스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회복 상태에 따라 개인 맞춤으로 진행되는 이 서비스는 가슴 수술 후 단독으로도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FREELANCE EDITOR 정재희 PHOTOGRAPHER 서세현
COOPERATION 유브클리닉(511-5377)



1, 2, 3, 7 '유브클리닉'은 갤러리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조성해 더욱 편안한 기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4 유방은 물론 페이스 케어 서비스까지 경험할 수 있는 '유브클리닉'의 트리트먼트 룸. 5 서울대병원의 장비와 시스템을 고스란히 옮겨온 '유브클리닉' 수술실. 6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브클리닉' 입원실.



SELECTION

Premium Marine Collagen

커피, 차 등 취향에 맞는 음료에 타서 섭취할 수 있는 파우더 형태의 '쇼어매직 콜라겐'과 함께
주름, 칙칙한 피부 등 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보자.



자외선,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노화하는 피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바르더라도 노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화장품 성분이 피부 진피층까지 흡수,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다. 건강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의 기둥이자 핵심 요인인 콜라겐을 순수한 형태로 함유한 '쇼어매직 콜라겐'이 이러한 피부 고민에 좋은 해답이 된다.

'쇼어매직 콜라겐'은 북대서양 캐나다 노바스코샤 청정 심해에서 포획한 자연산 대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순수 콜라겐 파우더다. 합성 첨가물, 합성 비타민 등을 함유하지 않았으며 미세한 파우더 형태로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칙칙한 피부, 잔주름 등 노화의 징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순수 콜라겐에 함유된 라이신, 메티오닌 등 필수아미노산 성분이 피부 면역력을 강화하기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유, 달걀, 견과류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배제한 제품으로 식품 알레르기에 민감한 이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차, 커피 등 음료 취향에 맞게 타서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장점. 매일, '쇼어매직 콜라겐' 10g 섭취로 하루가 다르게 젊어지는 피부를 직접 경험해보자.

EDITOR 이지형 PHOTOGRAPHER 염정훈
COOPERATION 쇼어매직(070-4353-2327)



‘럭셔리’는 눈에 보이는 호사나 물질적인 사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질을 앞서는 정신의 풍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노력이 진정한 럭셔리입니다
<럭셔리>는 명품의 진정한 의미와 예술이 주는 감동을 통해 여러분의 품격을 올려드리는 잡지입니다.

LUXURY DOES NOT ONLY MEAN SOMETHING THAT LOOKS EXTRAVAGANT.
THE TRUE MEANING OF IT IS THE VALUE OF A LIFE THAT PURSUES
THE EXTRAVAGANCY IN ONE’S MIND RATHER THAN MATERIAL ABUNDANCE.
<LUXURY> IS NOT SOLELY HIGH FASHION, BEAUTY AND LIVING BUT ALSO HAS REMARKABLE CONTENTS
RELATED TO THE ART AND CULTURE INSPIRING PEOPLE.





S.T. Dupont
PARIS



FENDI